



나훈아 신드롬...대한민국을 삼킨 '훈아형!'

영상콘서트 시청률 분방 29%·스페셜 18%
젊은 세대도 열광...유튜브·트위터 등 석권
중국선 영상 불법유통...‘사이다 발언’ 화제

모든 화제와 이슈를 단번에 빨아들인 '블랙홀'이었다. 그야말로 신드롬이라 할 만하다.

1966년 데뷔해 54년의 세월 속에서 이제 '가황'으로 불리는 가수 나훈아가 추석 연휴 세상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일흔셋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열정적인 자태, 지치거나 물러서지 않는 강건함으로 화려하고 강렬한 절창의 무대를 꾸며낸 힘이다.

그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30일 KBS 2TV '2020 한가위 대기화-대한민국 어게인'을 통해 한 편의 잘 짜인 공연을 선보였다. 30일 공연 실황 29%(이하 닐슨코리아)에 이어 관련 뒷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포함된 3일 '스

페셜' 편은 18.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시청률로 입증한 폭발적인 영향력은 TV를 넘어 곧장 온라인상으로까지 퍼져갔다. 중장년층뿐 아니라 1020세대 등 다양한 연령층이 나훈아의 노래를 찾아 들으며 열광하고 있다. 연세가 될지 모를 나훈아의 새로운 무대에 벌써 높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중장년층→젊은 세대까지 '나훈아 열광'

나훈아는 '대한민국 어게인'을 통해 화려한 콘서트 현장을 그대로 재현했다. 그는 2시간 30분 동안 무대를 지키며 모두 28곡의 노래를 불렀다. 무대 위에서 의상을 빠르게 갈아입기까지 했다. 실제 크기의 모형 배와 기차를 무대에 동원하고, 화려한 컴퓨터그래픽 화면을 이용해 바다에 뛰어들거나 몸에서 날개가 돌아나는 장면 등 거대한 스케일의 무대를 실감나게 펼쳐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폭파하는 화면 연출은 그중 압권

란 평가도 받고 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나훈아 말말 말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라를 누가 지켰나하면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다."

"우리가 세월의 모가지를 막 비틀어서 끌고 가야 하는데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면 세월이 끌려가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안 하면 일을 해야 세월이 늦게 간다."

"신비주의라니? 가당치 않다. 11년 동안 여러분 곁을 떠나서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랬더니 잠적했다 하고 은둔생활 한다고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 이제는 뇌경색에 말도 어눌하게 하고 걸음도 잘 못 걷는다고 하니까 내가 똑바로 걸어 다니는 게 미안해 죽겠다."

"이제 저는 내려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언제 내려와야 할지 그 시간을 보고 있다."

1위
ABC 공인 유료 발행부수
3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www.sportsdonga.com

난세영웅 함덕주...두산 3연승 가속페달

KIA전 5이닝 6K 1실점 5승...5위 두산, 상위권 재진입 신호탄

오윤석 사이클링히트에 7타점
롯데 4연승...5강 희망도 살려
NC 루친스키 18승·양의지 25호



두산 베어스가 포스트시즌(PS) 진출의 갈림길에서 KIA 타이거즈와 홈 3연전을 싸붙이하며 상위권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위 KT 위즈부터 5위 두산까지 각 1경기차로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6위 KIA와 7위 롯데는 PS 진출 마지막노선에 위치한 두산을 각각 2경기, 3경기 차로 추격 중이다. 누구도 PS 진출을 장담하기 어려운 '역대급' 혼전 레이스다.

두산은 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IA전에서 7-1로 승리했다. 주말 3연전을 모두 손에 넣은 두산은 시즌 전적 66승4무55패를 기록했다. 6위 KIA(64승57패)와 게임차도 2경기로 벌렸다. 1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4-12로 패해 6위로 추락했지만,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선발투수 함덕주는 5이닝 동안 3안타(1홈런) 1볼넷 6삼진 1실점의 호투로 5승(1패10세이브)째를 따냈고, 타선에선 박세혁이 1회 2타점 2루타 등 4타수 3안타 2타점을 책임졌다.

LG 트윈스는 수원에서 KT를 13-8로 눌렀다. 6-7로 뒤진 8회 4점, 9회 3점을 내며 뒷심에서 앞섰다. 마무

리투수 고우석은 10-7로 앞선 8회말 1사1·2루서 등판해 박경수를 뜯고, 장성우를 삼진으로 속아내며 '5아웃 세이브'를 기록, 4위 수성을 책임졌다.

롯데 자이언츠는 사직에서 한화를 14-5로 꺾었다. 4연승을 내달린 롯데는 63승1무58패를 마크하며 5강 진출의 희망을 이어갔다. 3-1로 앞선 3회에만 오윤석의 만루홈런 등으로 6점을 쏟아 담아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1회 2루타, 2회 1루타, 3회 만루홈런, 5회 3루타를 차례로 터트리며 KBO 통산 27번째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오윤석이 7타점을 기록했고, 이병규도 2안타 2타점으로 힘을 보탰다.

선두 NC 다이노스는 창원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4-1의 승리를 거둬 76승4무43패를 마크하며 흔들림 없는 질주를 이어나갔다. 선발투수 드류 루친스키는 5.2이닝 동안 6안타 4볼넷 2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18승(3패)째를 따냈다.

SK 와이번스는 인천 키움전에서 6-0의 완승을 거두며 9위를 유지했다. 선발투수 문승원이 7이닝 동안 5안타 3볼넷 4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6승(10패)째를 따냈다.

인천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두산 함덕주가 4일 잠실 KIA전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팀의 7-1 승리를 이끌었다. KIA와의 3연전을 싸붙이 한 두산은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스포츠동아DB



KBO리그 경기결과 ▶ 4일 잠실 KIA 1 : 7 두산 인천 키움 0 : 6 SK 수원 LG 13 : 8 KT 사직 한화 5 : 14 롯데 창원 삼성 1 : 4 NC

미네랄 2종
(아연/구리)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추출물

비타민 4종
(A/C/E/베타카로틴)

중장년의 침침하고 흐린 눈엔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눈의 중심부인 황반의 구성 성분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으로 맺히는 부분인 황반은 시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눈의 중심 부분입니다. 황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색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화로 인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밀도가 감소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중장년의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로 챙기십시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인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식약처 1일 권장섭취량(20mg)을 충족하는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과 기초 영양까지 케어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뿐 아니라 기초 영양 케어를 위해 1일 권장량을 100% 충족시키는 비타민 4종(A, C, E, 베타카로틴)과 미네랄 2종(구리,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6개월분 구매 시
정상가대비 **41% 할인**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330-9988

리턴업 전속모델
성유리

건강 기능식품
인증